

광주 '고독사' 전국 평균보다 높다

광주, 17개 광역지자체 중 5번째...전남도 1.6배 늘어 남성, 여성의 4배 이상...정부, 1인가구 증가 원인 분석

홀로 생활하다가 숨진 뒤에 뒤늦게 발견되는 '고독사'의 발생률이 광주가 5년간 지속적으로 전국 평균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인구 10만명당 고독사 발생 건수가 가장 높은 시도는 부산으로, 9.8명이었다. 대전이 8.8명으로 두번째로 높았고, 이어 인천(8.5명), 충남(8.3명), 광주(7.7명) 순이었다.

고독사는 전국적으로 2017년 2412건, 2018년 3048건, 2019년 2949건, 2020년 3279건, 지난해 3378건 등 총 1만5066건이었다. 지난 5년 사이 연평균 8.8%씩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사망자 중 31만7680명 중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1.1%에 달했다. 사망자 100명 중 1명 이상이 쓸쓸한 죽음을 맞은 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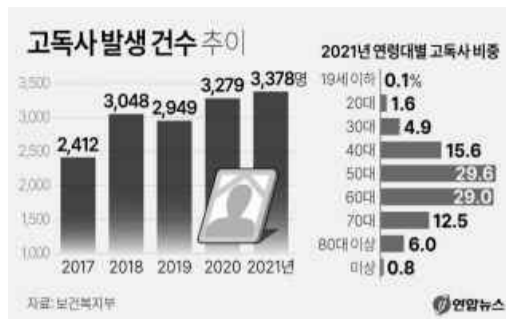
인구 10만명당 고독사 발생 비율은 2017년 4.7명, 2018년 5.9명, 2019년 5.7명, 2020년 6.4명, 2021년 6.6명으로 증가 추세인데, 부산·인천·광주

·충남 등 4개 시도는 지난 5년간 한해도 빠짐없이 전국 평균치를 상회했다.

이외에 경기(4.0→5.3명)와 전남(4.1→6.8명)도 5년간 발생률이 계속 높아졌다. 발생 건수로 보면 경기는 512건에서 713건(1.4배), 전남은 77건에서 124건(1.6배)으로 늘었다.

성별로는 남성 사망자가 여성보다 4배 이상 많았다. 지난해의 경우 남성 고독사 사망자(2817명)가 여성(529명)의 5.3배였다. 연평균 고독사 증가율도 남성(10.0%)이 여성(5.6%)보다 높았다.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중엔 80대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가장 크지만, 고독사 사망자 중엔 50~60대 중장년층이 매년 50~60%를 차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50대 남성(26.6%)과 60대 남성(25.5%)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다.

이같은 고독사 증가세는 1인 가구 중심으로 가족 구조가 변화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단절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분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전년보다 7.9% 증가해 전체



가구의 33.4%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고독사 증가세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 수는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81만1862명에서 작년 93만3481명으로 15.0% 늘었다. 환자 수는 20대에서 가장 많았으며 증가 폭도 45.2%로 가장 컸다.

전문가들은 1인 가구의 증가와 우울증 환자의 증가는 자살자와 고독사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가는 물론 지자체 차원의 사회 안전망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과학방역이라는데 거세지는 코로나 재확산

주간 일평균 11.2% ↑, 7명 중 1명 재감염...광주·전남 5천명대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과 기온 하강, 연말연시 모임 증가 등이 겹치면서, 신규 확진자와 재감염 추정 비율이 늘고 있다. 특히 최근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N.1 변이 검출률이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방역 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14일 브리핑에서 "본격적인 기온 하강과 연말연시 실생활동의 증가로 잠시(증가세가) 둔화했던 확진자 규모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단장은 특히 "백신과 감염으로 갖췄던 면역이 시간이 지나며 감소하는 것도 확진자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현재 유행은 증감을 반복하면서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이날 0시 기준 전국 신규 확진자 수는 8만 4571명으로, 이를 연속 8만명대를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주일 전인 지난 7일(7만4697명)보다 9874명이나 증가한 것이다.

전날 3개월 만에 신규 확진자 5000명을 돌파한 광주·전남은 이날도 각각 2870명, 2748명 등 551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방역당국은 당분간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적

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방대본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일 평균 5만 8958명으로 전주보다 11.2% 증가했다. 감염재생산지수(Rt)는 1.04로 8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수치화한 지표로, 1 이상이면 '유행 확산'을 의미한다.

방대본은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으로 유지했다. 재감염 추정 사례 비율(11월 마지막주 기준)은 14.7%로 전주(13.29%)보다 늘었다.

신규 확진자 7명 중 1명은 2회 이상 감염자인 셈이다. 전체 누적 감염자 중 2회 이상 감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1%다.

광주의 경우도 지난 주 신규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 17%나 증가했으며,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발생자도 143명으로 여전히 세종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황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1600cc 미만 차 살때 채권 매입 안해도 된다

내년 3월부터...채권 표면금리 1.05%→2.5% 인상

내년 3월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 소형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채권의 표면금리도 현재 1.05%에서 내년 3월에는 2.5%로 높아져 즉시 할인 매도하는 경우에도 손실이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은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려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내년 3월부터 1000~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해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자동차를 구매해 지자체에 등록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차량가액의 최대 20%)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채권 매입 5년(서울은 7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채권 매입액	개선 후	할인 매도 손실액	개선 후
서울시 주민 (차량가액의 9%)	면제	현행 163만 원 (할인율 20%, 130만 원 돌려받음)	33만 원 부담 감소
경기도 주민 (차량가액의 6%)	면제	현행 109만 원 (할인율 16%, 92만 원 돌려받음)	17만 원 부담 감소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대다수 소비자는 금전적 부담 등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 매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주민이 2000만원짜리 아반떼(1598cc)를 새로 살 경우, 차량가액의 약 9%인 163만원의 서울시 도시철도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한다.

이를 즉시 매도하면 채권시장에서 할인율 20%가 적용되며, 130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해 33만원 가량의 손해를 보는 셈이다.

/*연철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수도권 엔지니어링 및 국내외 주력산업 영위기업 CEO를 대상으로 열린 '2022 수도권 투자협약식'에서 기업 및 사·군단체장들과 MOU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제공>

전남도,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1조2751억 규모 투자협약

포스코홀딩스(주) 등 3개 기업...일자리 400여개 창출

전남도가 14일 롯데호텔서울에서 투자환경과 투자인센티브를 설명하는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포스코홀딩스(주) 등 3개 기업과 1조2751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정인화 광양시장, 공영민 고흥군수, 박현식 여수부시장과 이방실 SK하이닉스 부사장, 박영태 캡시스 사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 박희준 EIP자산운용 대표, 주영진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장, 신승철 보성 부시장, 정순남 한국전지산업협회 부회장, 강윤성 재경광주전남향우회 수석부회장 등 100여 개 기업 대표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이어 첨단·전략산업 투자유치를 목표로

중점 주력사업인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수소, 반도체 등 전남의 역점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환경과 투자인센티브에 대해 설명하고 전남에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영암·해남 관광레저 기업도시인 '솔라시도' 구성지구 개발사업사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미래도시로 조성 중인 솔라시도의 투자 장점을 설명하면서 관광시설, 친환경 재생에너지 전용산업단지, 웰니스 산업 등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줄 것을 요청했다.

솔라시도에 재생에너지 기반의 데이터센터를 투자할 예정인 TGK(주)는 해외 투자유치사례발표를 통해 글로벌 기업 유치 계획을 밝혔다.

이에 앞서 전남도는 포스코홀딩스(주), 금호미쓰이화학(주), LF(주) 등 3개 기업과 1조2751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했다. 이번 투자유치로 400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세풍산업단에 투자하는 포스코홀딩스(주)는 2025년 말까지 5751억원을 투자해 양극재용 수산화리튬제조 시설을 건립하고, 금호미쓰이화학(주)은 여수 국가산단에 5000억원을 투자해 2024년 준공까지 폴리우레탄 핵심원료 제조공장을 건립한다.

(주)LF는 고흥군에 2000억원을 투자해 2029년까지 호철(250실)과 해양휴양빌리지(수목원, 미술관, 해양레저시설 등)를 조성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싼, 임야, 삽니다
지분환영. 010-9582-7400

급매물건 삽니다
경매직전 물건 삽니다
(주)오천. 010-3605-5000

“급매” 법인까지 함께 인수.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동 391-3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산단1길 12-8)

대지 공장용지 12114.6 (3,665 평)
건물 1)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1,326 (400 평)
2)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사무실 234.6/234.6 (70/70평)

소유자 (주) 크로스지 - 2011년 설립, 제조업

재무액 현황
금융권 채무 33억8천만원 기타채무(1곳) 4억5천만원 시보조금 7억 (공장등록 5년후 소멸)
*인수총액 39억8천만원
실인수금액 6억 (기타채무 4억5천 상환포함)

010-3812-1394, 070-7747-1399

토지 급매

광주광역시 남구 입암동 692 (호천 1지구) 대지 683.4㎡ (207평)

- 근린생활시설용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2면 도로접(중로1류, 소로2류)
- 5층 건물 신축 가능(대형식당, 스크린 골프장, 커피숍 등 다양한 상가와 1주택 건축 가능)

매매가 : 18억 4천만원

010 - 3605 - 8564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 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사망으로 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법인회사 부도회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합병보고서에 갈음하는 공고

현대개발 주식회사(이하 '합병회사')는 주식회사 유나이티드(이하 '피합병회사')가 2022년 11월 11일 각자 임주총회와 같은 하는 이사의 결의와 임시주총회 결의로 당사자 피합병회사를 흡수합병함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고, 이후 상법 제272조의 5에 따른 제정회계연도부터는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합병심사결정 및 청산·상환·배당 등 제25조 제항에 의거하여 당사자 등 지적 합병보고서 주주총회에서의 보고에 갈음하여 당사자 피합병회사의 합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음 -

1. 합병회사: 현대개발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명정길 20(신창동))
피합병회사: 주식회사 유나이티드 (충남도 당진시 괴성로 159)
2. 합병의 방법: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를 흡수합병 함.
3. 합병비율: 합병회사: 피합병회사 = 1:0 (무주주합병)
4. 합병 후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의 변동: 변동사항 없음
5. 합병의 진행 경과

내 용	일 자
합병계약 체결 승인 이사회일	2022년 10월 26일
합병계약 체결일	2022년 10월 27일
합병심사를 위한 주주총회召開 이사의 결의일	2022년 11월 11일
채권자 이의환사 기간	2022년 11월 11일 ~ 2022년 12월 12일
합병기간	2022년 12월 15일
합병 종료보고서 제출 이사회 결의 및 공고일	2022년 12월 15일
합병등기예정일	2022년 12월 16일

2022년 12월 15일
현대개발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명정길 20(신창동)
대표이사 박철수

분 실 공 고

- 공금계약서 및 기타계약서 :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65번길 20, 무등산 자이엘어울림 2단지 201동 702호
- 계약자: 조영란

위와 같이 분실공고함.
2022년 12월 15일

구독문의
신문 220-0551
예향 220-0550